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25
2020.7.5
창립 32주년 기념호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Ⅱ)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오늘의 주요기사

2–4면 창립 32주년기념 설교
5면 유유청청 특집
6면 목회칼럼
7면 항존직 임직자 명단
8면 2020 항존직 선거 공지

교회일정

7/11(토)~26(주일)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7/12(주일) 정기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코로나19 시대에 맞은 주님의교회 32주년은 4부 예배 시간에 있었던 임직식을 제외하고는 방역을 위해 특별한 행사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2019년에 피택되었던 장로 3명, 권사 19명, 안수집사 19명이 소정의 피택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았다.

함즐함울

창립 32주년 기념예배 설교 | 김화수 담임목사

다음 세대를 향한 이야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사기 2:6~10)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쿨레레' 로서의 신앙교육

영어에서 통상적으로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명사 '커리큘럼(curriculum)'은 동일한 철자의 라틴어 '쿨리쿠룸(curriculum)'에서 온 말인데, 본래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라틴어 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 등이) 달리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쿨레레'(currere)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과정(Eng. 'curriculum')을 정적인 경주 코스를 의미하는 명사 '쿨리쿠룸'이 아니라, 말이 달리는 경험과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동사 '쿨레레'로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교육과정이란 단순히 〈정적인 교육 요목과 순서〉를 뜻하는 명사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총체〉를 의미하는 동적이고 포괄적인 동사라는 것입니다.

〉 2면에 계속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창립 32주년 기념예배 설교 | 김화수 담임목사

다음 세대를 향한 이야기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인 2020년 6월 28일 김화수 담임목사는 기념 설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한 꿈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 전문을 수록합니다.

함즐함울

〉 1면에서

이는 신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쿨레레'(동사)로서의 신앙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획일적이고 정형화한 규범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습득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각자의 성향과 기질이 전혀 다른 자녀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진정한 교사이고, 자녀의 인생길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신앙교사입니다. 부모에게는 이러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사로서의 삶이 그 자체로 신앙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모의 신앙 여정과 자녀의 양육 여정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쿨레레'로서의 신앙교육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창립 32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그 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 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19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장애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존립 자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기에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 상황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한 사사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이후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 충격적이라 할 만한 현장을 1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그 이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른 세대"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인들이나 가나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민족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충격적이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던 부모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지도 깨닫게 하지도 않아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믿는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고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창립기념주일이기에 그만큼 특별한 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존재체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본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7절 말씀을 보면 부모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존재체험을 하였기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존재체험이 있어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면 그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이와 연관하여 좋은 실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9~20일 이틀간의 피택자 수련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번 피택자 훈련을 통해 가장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제대로 알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훈련 과정 중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임원과 전국 지사장, 본사의 부장들이 분기당 한 번씩 전부 모여서 회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경영전략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회의는 경남 통영에서 6월 5~6일, 1박 2일로 하는 것으로 5월 초에 공지가 되어서 다행히 피택자 수련회는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에 갑자기 경영전략회의를 6월 19~20일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피택자 수련회를 빠지면 피택자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니 시간을 비워두라고 훈련 시작 때부터 목사님께서 미리 여러 번 공지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사의 책임자인 지사장으로서 회사 공식 행사를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데 기도하면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일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또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진짜로 일정이 바뀌더라고 이 바뀌는 과정을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원들이 모두 이 과정을 같이 경험해 보고 싶어서 5월 18일에 우리 조 큐티 카톡 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회사 일정이 바뀌든지 취소되든지 해서 피택자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목사님들도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기도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후로

창립 32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그 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 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현실적인 장애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존립 자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기에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는 저희 조원분들과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일정이 아직 안 바뀌었냐고 물어보곤 하셨는데 저는 아직 안 바뀌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피택자 수련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일정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6월 4일, 회사에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2분기 경영전략회의는 1박 2일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고 6월 1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전 임원과 부장,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근무하는 지사장은 직접 부산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후 진행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다만, 그 외 지사장들은 화상으로만 참석한다."

저는 공지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우리 조 큐티 단톡방에 바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화상회의로 바뀌어서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 조 모든 분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일정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19일에는 조금 늦게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간도 오후 1시부터 4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5시 10분에 SRT를 타면 6시 10분에 수서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교회에 오니 6시 30분에 도착하여 밥 먹으며 교제도 하고 수련회 일정에 조금도 늦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저를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경험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코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아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몇 차례나 상황 속에 간섭하시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자녀들은 아빠가 체험한 하나님의 존재체험 얘기를 듣기도 했겠고 직접 목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존재를 자녀들과 나누며 가르치며 살아가면 집사님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사가 되는 삶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존재체험을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전반부의 말씀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었다는 어떤 구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가르침의 삶보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 문화를 습득하고 그 땅에서 좀 더 잘 살아 보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우선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일들로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져 버렸고, 그들의 영적인 무관심이 자녀들의 신앙적 무관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녀들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자 씨름하며 모든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고자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8년 11월에 주님의교회 사역 방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왼쪽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뷰티풀페어런팅센터의 사역과 큐티와 소그룹운동이 연결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역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는 사역입니다. 이 두 다이어그램은 서로 순환구조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역 방향입니다.

그 사역 방향의 핵심은 가정과 다음 세대의 투 트랙입니다. 이 투 트랙은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정이 없이는 다음 세대가 없으므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의 우리 교회 표어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였고 2020년인 올해의 교회 표어도 동일하게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로 정해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의 교육 중심이 교회학교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교육 중심이 가정이 된 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다음 세대의 교육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이 여전히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다음 세대의 교육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주 과정의 세움학당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학교가 연계되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교육 바로 알기, 공과 바로 알기, 교사와 상담, 교사의 성경적 자기관리, 교사와 영성, 교사의 지도력 등등과 현장 체험까지 신앙교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20주 동안 훈련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 20주 과정의 세움학당을 수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180명이 등록해서 열심히 참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세움학당에 등록해서 교우들의 가정과 교회학교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점점 더 많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심하고 시작합시다.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세움학당을 수료한 수료자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신앙교사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움학당을 통해 부모가 신앙교사가 되는 필수 코스를 훈련받기에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가정이 신앙훈련의 현장이 되고, 가정이 아름다운 소그룹공동체가 되어 교회학교가 더욱 건강한 다음 세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학교가 서로 연결되고, 이제 교회학교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 중심이 되어 신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168분의 1, 아시지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겨우 1시간 정도 머무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난다는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꿈인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맡기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신앙의 주체이고,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되어야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실제상황으로 접하거나 체험하는데 우리는 주저하거나 외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학교 현장 교육이 멈추고, 교회학교에서의 모든 사역의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저절로 우리의 실제상황으로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가 되어야 함을 현실로 깨닫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168분의 1의 신앙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168분의 10이 되기도 하고, 168분의 20, 그리고 그 이상이 신앙교육이 될 수 있는 현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가 바른 신앙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은 거의 100%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영상을 통한 여러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계발하고자 연구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바른 신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뷰티풀페어런팅센터를 통한 교육과 세움학당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이 특별한 날에 가정에서 바른 신앙교사가 되고자 하는 특별한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주 분명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역할 모델이 되는 삶

10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까닭이 부모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의 삶의 역할 모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역할 모델이 되면 자녀들은 틀림없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나눔의 자리에서 교우들과 나눈 적이 몇 차례 있지만 주일 강단에서는 처음 나누는 얘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사역하던 제가 영주권 신청 시기를 잘못 알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취업비자 만료를 몇 달 앞둔 상황이어서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방문비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방문비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목사로 사역을 못 하므로 교회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민 사회는 작은 일도 부풀려져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들이 나는 터라 교회 리더들이 제게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4년 동안 목사로서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사역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로 사역을 하시면 취업한 것이 아니고 자원자로 사역하시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는 선교구제비로 목사님 사례도 제공해 드릴 테니 사역을 계속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제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취업비자 없이 방문비자라 하더라도 사역을 계속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우 중의 누군가가 비자에 대해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나는 불법을 저지르며 적당하게 타협하여 사역하고선 그 교우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법을 잘 지켜 진행하시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불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몇 주 후, 취업비자 만료일이 되었을 때 저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제 아이의 학교 문제였습니다. 취업비자일 때는 학비가 무료이지만 방문비자로 바뀌면 그 당시 학비로 연 13,000불을 내어야 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학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아내와 의논한 후 아이에게 아빠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1년가량을 학교를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새 학기에 중2로 올라가는 아이가 자기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학교를 가야겠다며 그 사실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끝에 아이가 받아들여서 며칠 후 취업비자 만료를 이틀 앞두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비서가 나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비서가 제게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거의 없었던 일이라며 저보고 미스터 킴이 아주 정직해서 고맙다고, 학교와 이민성이 링크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지금까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민성에 가서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다는 문서를 받아오면, 제 아이가 학비를 내지 않더라도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민성에서 문서를 받기 전에도 제 아이에게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날 제 아이는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지만, 정직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니까 정말 뜻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아이에게 그날과 같은 정직에 대한 최고의 교육 현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 아이가 평생 정직함으로 살아갈 역할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우들은 이민성에 연기명 해서 제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사역을 내려놓은 지 4주 차 금요일에 이민성으로부터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저에 한해서, 예외적인 정책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해주겠다는 공식 문서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뉴질랜드 이민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4년짜리 취업비자가 다시 발급되었습니다. 취업비자의 최대치는 4년인데 어찌 된 일인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1년간 더 취업비자를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4년짜리 취업비자를 새롭게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이민역사에서 전무후무한 8년의 취업비자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exceptional policy"라고 기록해서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심하고 시작합시다.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화수 담임목사

유유청청 특집 | 청년 기고

"라떼는 말이야"와 "잘 사는 제자"

중국 유학 중에, 겨울방학을 틈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6월 들어 모교 방역활동에 참가했다. 방역 요원들은 일시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매 교시 쉬는 시간에 교실 환기와 복도에서, 점심 시간에는 급식실, 매점 앞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지를 지도한다. 무더위 이른 아침부터 교사 그리고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니 힘들어하는 표정이다. 이 무더운 날에 교사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강의하고,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하루 종일 수업 들어야 하니 서로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18년 전의 고등학교 분위기와 사뭇 다른 현재의 고등학교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첫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가 살아 있었다면,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학생들에게 자율권이 많이 부여되었다. 영어 '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했다. 'E'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ducare'는 '끌어내다'라는 뜻이다. 즉,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다. 교육이란 배우려는 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어떠했는가? 무엇을 집어 넣으려고만 했지, 학생들의 잠재력을 끄집어 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육은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을 억지로 집어 넣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깨닫게 하여 꺼낼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생을 존중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한편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품격을 설명하고 있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가 부여 받은 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 즉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의무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 모두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지녀야 한다.

둘째, '공부 잘한다'의 뜻은 무엇인가? 공부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나와 있다. 학문은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기술은 사물을 잘 다룰 수 있게 연마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위학일익 위도일손(僞學日益 爲道日損), 배움이란 매일 채우는 것이고, 도란 매일 비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지식이니 매일 학문에 정진하여 채워나가야 하지만, 도(道)를 깨우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저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가르칠 것만 있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런 교만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셋째, '잘 산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학생 때부터 우리는 자주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잔소리를 자주 듣는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거기서 또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 그 이후,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 곤란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아침 라디오 시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목사님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잘 산다'라는 말을 '엄청 돈이 많은 부자'인 뜻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자인 것'과 '잘사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누구의 좋은 집에 가면 "정말 잘사네" 혹은 전문직이나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살겠다"라고 말한다. 사실, 그들은 잘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 것일 뿐이다. 고등학교 때 뵐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신 국어 선생님이 계신다. 그분은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학생들의 말을 잘 경청했다. 그 선생님은 교사 시절, 늘 성적이 좋은 친구보다는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더 관심이 간다고 했다.

선생님께서 조직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나에게 해 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너가 사회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야. 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다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그건 아니야. 오히려,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조직 구성원의 활동이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너가 잘 판단하고 행하면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가치관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 목사님의 잠언서 강의를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전하고 싶다. 이제는 세상적 관점에서 따르는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지혜 안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 기간만큼은 사회적 거리가 아닌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 타인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서 권력과 부의 욕구에 빠져 자기자신을 중심을 놓고 타인을 해치는 삶이 아닌, 타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함께 연대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찾기를 바란다.

양지헌 청년부

유유청청 특집 | 학생 기고

〈드래곤 시드(Dragon seed)〉를 읽고

이 책을 읽으면서 관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이 내가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을 형상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목수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악한 마음을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게 되었다. 평소에 성경을 정말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가던 시점에 정말 나도 이 책을 잘 읽게 된 것 같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나 원망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불만이나 의견의 차이, 또는 친구 관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계속 나의 마음에 쌓아왔던 것 같다. 이 책을 읽게 된 후에는 명확해졌다는 마음이 큰 것 같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모습을 책에서 인용하긴 하였지만, 좀 더 나를 사로잡는 악한 마음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힘,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온 닉과 같이 사춘기나, 화를 자주내며 불화가 자주 생기는 가정과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전에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견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 소홀히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는 해독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기로 다짐하였다.

그래도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다. 책의 후반에 나오는 쇼샤나의 남편이 되는 데마스는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서 무덤가로 끌려간 후, 자신의 터전과 원래의 삶을 후회한다. 이와 같이 나 또한 주님께 잘하려고, 큐티나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노력과는 다르게 항상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신이 생긴다. 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님은 큐티의 시작 말씀에 이런 말을 하셨다. 주님을 뵙고, 대화하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의 고통과 집중이 안되는 것, 또는 기도를 하기 귀찮아하는 마음의 힘듦이 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며, 주님을 순종하는 일이 기뻐지기 때문이다. 책에서나, 이 말씀에서나 항상 주님을 상상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겨주는 책이 된 것 같다.

장윤태 중등부

목회 칼럼

신앙 공동체의 회복

사람이 그리운 시절. 지금은 누군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몹시 그리운 시절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가까이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 속 깊은 나눔을 가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겨자씨 식구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던 부서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한 달 두 달이 흘러갔어도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거리 두기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먼저 다가가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단순히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머리가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아래에도 있지 않은 신인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전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신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한 개인이 아닌 '우리'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단련하시고 빚으소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하소서.

교제와 나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와 나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와 나눔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흩어진 교인들은 다시 주님의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상으로 무디어진 마음속에 다시 예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 모로 걱정되는 것들이 태산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는 모이기 힘들어서 교회들이 많이 약해질 것이라고 쉽게 예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말까 싶습니다.

잠시 지난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진정 진실한 것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이 이해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서로 사랑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회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순종하여 참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아봅니다.

물음

지난 주일에 로비에서 마주친 한 할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앞으로 정말 뭔가 큰 역사가 있겠지요?"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이자고 크게 소리칠 수 없는 시대의 아이러니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회오리가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두가 떠난 황량한 허허벌판이 남아있을지, 화관을 머리에 쓰고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의 긴 행렬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두 손을 마주잡을 수도 없는 시대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 영으로 끈끈히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단련하시고 빚으소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하소서. 아멘. **허준** 목사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3

"열린 예배"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열린 예배(×), 열린 집회 (○)

"열린 예배"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래 이 예배는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로 알려진 집회의 형태로,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통하여 소개되면서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본래 "열린 예배"라는 용어는 "구도자"라는 부자연스러운 번역 대신에 1990년대 초에 유행하던 "열린"이라는 단어로 의역한 것으로 "구도자의 집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열린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형식과 접근 방법을 택한 구도자의 집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열린 예배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예배라기보다는 "전도 집회"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불신자들, 혹은 구도자들은 아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또 한 가지 예배의 기본 정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로 응답하는 드림에 있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거나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열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행위여야 하지,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예배가 회중지향적이 되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드림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영혼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집회이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열린 예배"라는 용어는 차라리 "열린 집회"로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구도자의 집회"와는 별도로 신자 중심의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즉 구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 집회로서의 열린 예배의 개념보다는 기존 신자들에게 새로운 생동감을 주는 예배로서의 열린 예배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예배는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전통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잔치적이고 시각적이며 회중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많이 격려하는 생동감 넘치는 예배인데, 이를 가리켜서 "열린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의미상으로도 "열린 예배"가 있다면 "닫힌 예배"도 있다는 말인데, 무엇이 열린 예배이고, 무엇이 닫힌 예배인가? 또 무엇에 대해서 열려있고, 무엇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굳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기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열린"이라는 용어보다는 "젊은이 예배"혹은 "찬양 예배"등으로 사용하고, "열린 예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즐함울** 정리

교회 소식

신임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2019년에 피택되었던 항존직 피택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주제의 마지막 피택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2020년 6월 28일, 창립 32주년 기념일에 안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순탄하지 않았던 교육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을 연단했을 이들은 이제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기고, 어린아이보다 더 겸손하며,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곳에서 손에 물을 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기로 서약했다. (가나다 순)

■ 장로

서정하

신형섭

최재경

■ 안수집사

구성원

김성수

김승노

김윤수

김형세

김희동

박동진

박태곤

배기호

신재범

신재은

유신식

이성옥

이정춘

이철용

정도일

현병택

홍승길

황영균

■ 권사

김경희K

김명숙

김선미

김성은

김예경

김은희D

김지수

류혜경

민연식

유 경

윤숙영

이숙희

이영숙

이혜련

이효순

조선옥

조정숙

천옥현

최은실

교회 소식

2020년 항존직 임직식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을 맞은 2020년 6월 28일 4부 예배에서 2020년 항존직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2019년 항존직 선거를 통해 피택된 장로 3명, 안수집사 19명, 권사 19명이 피택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이날 안수를 받았다.

임직자 명단(생년월일 순)

* **장로 3명**
  신형섭, 서정하, 최재경

* **안수집사 19명**
  이정춘, 현병택, 이철용, 박동진, 정도일, 김승노, 김희동, 배기호, 김형세, 이성옥, 김성수, 구성원. 황영균, 홍승길, 신재범, 박태곤, 김윤수, 신재은, 유신식

* **권사 19명**
  김경희, 조정숙, 천옥현, 김선미, 이혜련, 이숙희, 조선옥, 김지수, 민연식, 김성은, 김예경, 이효순, 최은실, 이영숙, 유 경, 김명숙, 윤숙영, 류혜경, 김은희

임직식이 끝난 후 이영자 은퇴장로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첫째, 임직자들은 교회의 중직자임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서장들이 되었을 때 각 기관을 잘 알고 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헌금을 사용하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교회는 항존직을 세울 때 교우들의 기도와 엄격한 투표로 진행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교우들의 사랑과 신뢰와 관심을 늘 마음에 담으시고 한결같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간결하지만 무게 있는 조언을 전하여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이날 임직식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회중석은 간격을 두어 표시된 자리에만 앉을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함즐함울

주님의교회

2020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8/9(주일)
– 당회의 공천 투표 : 9/13(주일)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10/11(주일), 2차선거 10/18(주일)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기준)	자질 및 성품
장로	7년	10년	만40세 - 65세 미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안수집사	5년	5년	만35세 - 70세 미만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권사	5년	5년	만35세 - 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항존직(은퇴장로, 사임장로, 시무·은퇴 안수집사, 시무·은퇴권사, 협동장로)
- 겨자씨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 총 투표참여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투표참여자의 1/2이상 득표자

2020년 6월 28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섬김과나눔 소식

2020년 제1차 회원총회 개최

주님의교회가 2011년에 지역사회복지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교회 구제사역 기관인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이 2020년 제1차 회원총회를 지난 6월 30일(화요일) 10시 30분에 정신여고 김마리아 회관 중예배실에서 개최했다.

법인은 작년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 금년 초에 개최해야 할 회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해오다가 최근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정부가 권고하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회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원총회에서는 2019년 법인 감사보고에 이어 2019년 수입지출결산보고(안), 2020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고 이어 법인 이사회가 추천한 임원선임(안)을 상정하여 주님의교회 조병길 장로를 법인 상임이사로, 주님의교회 김낙균 장로를 법인 감사로, 임기 만료된 노봉옥 은퇴장로를 연임이사로 선임했다.

회원총회 의안 처리에 이어 법인은 2011년부터 법인이 위탁운영한 송파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재임한 박연진 센터장과 늘푸른대학에서 팀장, 교무처장으로 사역한 권성호 안수집사에게 지난 9년여 동안 법인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각각 공로패를 증정하고 2020년 제1차 회원총회를 모두 마쳤다.

황바울 목사의 기도와 같이 앞으로 주님의교회 구제사역 기관인 (사)섬김과나눔이 지역사회복지와 공익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사명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의영 안수집사 / 섬김과나눔

알립니다

1. 2020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일정 : 7/11(토)~26(주일)

드라이브스루 : 7/11(토) 오전11:00~오후2:00(장소: 교회, 신청자에 한함)

드라이브스루 외 모든 프로그램 온라인 진행(유튜브 유아숲 채널)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2. 상반기 온라인 양육클래스 종강 및 수강 연장 안내

온라인으로 진행된 양육클래스 8개 강좌가 6/14(주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에 수강 신청을 하여 전송받으신 링크를 통한 영상 확인은 8/29(토)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 방순희 권사(010.3622.1368)